

자동차업계 '4조원 튜닝시장' 잡아라

정부, 규제풀어 시장 활성화 현대차·기아차 온라인몰 오픈 수입차업체도 진출 잇따라

정부가 자동차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자동차업체들의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각종 규제를 풀어 현재 5000억원 수준인 튜닝시장 규모를 2020년까지 4조원 규모로 키울 방침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업체 가운데 튜닝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현대·기아차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달 튜닝 브랜드 '튜익스(TUUX)'와 '튜온(TUON)'의 온라인몰을 각각 오픈했다.

튜익스몰에서는 현대차 맥스크루즈 등 8개 차종에 대한 튜닝상품을, 튜온몰에는 기아차의 올 뉴 쏘울 등 5개 차종에 대한 튜닝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온라인 튜닝몰을 단순히 기존 전문업체의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시중의 다양한 튜닝업체들과 개발단계에서부터 판매까지 협업체계를 갖춰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이는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이 중소기업들이 주로 포진해 있는 사업에 뛰어들다는 비판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GM도 외부업체와 연계해 랩프와 스포일러, 휠 등 자동차 관련 액세서리를 판매 중이다.

스포츠퉂유틸리티차량(SUV)을 주로 판매하는 쌍용차는 튜닝산업이 발전할 경우 SUV 판매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고 튜닝사업에 적극적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SUV 차량은 세단보다 튜닝할 수 있는 아이템이 많다"면서 "SUV 구매자들은 레저나 동호회

활동도 활발해 튜닝자들이 많은 사람의 눈길을 끌 수 있다"고 말했다.

쌍용차는 현재 전문업체와 협력해 차량 출고 전에 고객이 요청할 경우 튜닝제품을 달아주고 있다. 출고 후 고객이 직접 달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비용, 시간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입차 업체들도 국내 튜닝시장에 잇따라 뛰어들고 있다. 폴크스바겐과 아우디의 튜닝 브랜드인 압트(ABT)가 지난해 9월 공식 출범한 데 이어 10월에는 메르세데스-벤츠 튜닝 전문 브랜드로 유명한 브라부스(BRABUS)도 국내 시장에 진출했다.

이 업체들은 튜닝부품과 함께 튜닝이 끝난 완성차도 판매할 계획이다.

자동차업체 관계자는 "자동차의 외관과 성능에 대한 고객의 요구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튜닝 붐'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 솔라리스

현대·기아차 브릭스 점유율 11.2% 사상 최대...114만9553대 판매

현대·기아자동차가 브릭스 지역에서 사상 최대 점유율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의 판매기록을 세웠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1~5월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등 브릭스 시장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증가한 114만9553대를 판매해 11.2%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지난 2002년 3.3%에 불과했던 점유율은 해마다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10.8%를 기록했으며 올해 처음 11%를 넘어선 것이다.

현대차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9% 증가한 80만20916대를 판매해 7.8%의 점유율을 보였고, 기아차는 이 기간 7.9% 늘어난 34만6637대를 팔아 3.4%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브릭스 지역에서 점유율 1위 업체는 폴크스바겐으로, 이 기간 193만 3369대를 판매해 18.9%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현대·기아차는 2위에 올랐고, 107만1299대를 판매한 GM은 10.5%의 점유율로 3위를 차지했다. 현대·기아차와 GM의 점유율 격차는 지난해 같은 기간 0.3%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더욱 벌어졌다.

현대·기아차는 1998년 인도를 시작으로 2002년 중국 시장에 진출했으며, 이후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러시아와 브라질에 현지 생산체제를 마련해 점유율을 넓혀왔다.

지역별로 보면 브라질에서는 현지 공장에서 생산판매 중인 전략 소형차 HB20 시리즈의 판매 호조로 현대차 점유율이 작년 동기 대비 0.8%포인트 증가한 6.8%를 기록했다. 기아차까지 합치면 전체 점유율은 7.5%에 이른다. 러시아에서는 현지 산업수요 감소에도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은 지난해보다 0.8%포인트 늘어난 14.5%를 나타냈다. 이는 현지 수입차 판매 1, 2위를 기록 중인 현대차 솔라리스(한국명 엑센트)와 기아차 리오(한국명 프라이드) 판매량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브릭스 지역은 미국과 유럽 시장 다음으로 주요 업체 간의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라며 "이들 지역에 현지 생산체제를 적기에 구축해 점유율이 빠르게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현대차가 그랜드 스타렉스를 개조해 판매하고 있는 스타렉스캠핑카



스타렉스 캠핑카 내부

승합차, 이달말부터 캠핑카 개조 가능해진다

푸드트럭은 다음달부터 구조 변경

레저 수요 확대에 따라 이달 말부터 일반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또 전조등을 제외한 방향지시등, 안개등, 주간주행등 등의 등화장치는 튜닝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튜닝규제 완화와 제도적 기반 구축으로 튜닝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안전과 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동차 구조변경은 안전성 때문에 금지됐으나 앞으로 여가형과 생계형 튜닝은 안전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허용된다.

국토부는 이달중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곧바로 캠핑카 구조변경을 허용한다. 소화기와 환기장치 등을 설치하면 캠핑카 튜닝을 승인받을 수 있다.

소형 트럭에서 음식을 조리해 파는 푸드트럭은 다음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구조변경이 허용된다. 푸드트럭은 최소한의 적재공간(0.5m)을 갖추고 안전·환경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냉동기, 압축전연가스(CNG) 연료통 등 특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량 총중량 증가 최대 허용치가 60~120kg 확대된다.

인터넷으로 구조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승인서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3~7일에서 신청 당일로 단축하는 등 튜닝 승인 절차도 간소화한다.

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유지된다. 특히 광속조절장치 없는 고광도전구(HID) 전조등 장착 등 불법튜닝 단속과 처벌은 강화된다. 튜닝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우선 튜닝부품의 성능과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자 자동차튜닝협회가 튜닝부품을 인증하고 정부가 이를 관리·감독하는 제도를 연말께 도입한다.

1단계로 소음기, 휠 등 5~7개 부품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추진한다.

또 내년 말까지 보험사가 튜닝 부품의 손상을 보장하는 튜닝보험상품을 개발하게 유도하는 한편 제작사가 차량 고장 시 튜닝부품 사용이 이유로 보증을 거부하려면 튜닝이 고장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사실을 제작사가 직접 입증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동차 제작자가 옵션 주문을 받아 튜닝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작사 튜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작단계별 자기인증제를 도입하고 수제 스포츠카 등 소량생산 자동차의 별도 인증제도 마련한다.

국내 튜닝시장은 미국(23조원), 독일(23조원), 일본(14조원)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과 비교하면 규모가 매우 작다.

/연합뉴스

국산차 국내외 시장서 리콜 급증

올해 들어 미국 등 주요 해외 자동차시장에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자동차 리콜 대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리콜 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큰 미국과 일본 업체와 달리 국내 업체들은 신속한 대처 등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잘 지켜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연구원이 22일 내놓은 '세계 자동차 리콜사태 동향과 우리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체가 올해 1~5월 미국과 중국, 일본 및 한국 등 4개국 시장에서 리콜을 실시한 대수는 50만1000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7만3000대로부터 189.5%나 급증한 수치다. 미국과 일본의 완성차 회사들은 국내 업체보다 리콜 대수 증가율은 낮았지만 규모가 월등히 컸다. 미국 업체들은 작년보다 92.7% 증가한 2305만5천대를 리콜했고, 일본 업체들의 리콜 대수는 92.0% 증가한 255만 9000대였다.

/연합뉴스

2015. 5월 준공예정

한빛타워 분양/임대 비교할수록! 따져볼수록!

위치 가격 수익성 **넘버원!**

관/층/업/종	내용
1층	금융권, 약국, 커피숍, 안경점, 24시 편의점 등
2층	인사, 가정의학과, 미용실, 대형매일리스토람 등
3층	소아과 내과, 치과 등
4층	각종학원 등
5층	이비인후과, 피부비뇨기과, 성형외과 등
6층	보험회사, 각종사무실
7층	
8층	스카이라운지, 대형휘트니스센터 등

나주혁신도시 내 중심 상권 프리미엄 빌딩

한빛타워 투자포인트

- 투자의 안전성** 신탁회사(아시아신탁) 지금관리로 수분양자 보호
- 합리적인 분양가 실용적인 설계** 인근 상가빌딩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
높은 층고(4.2m~5.4m)로 인한 업종의 다양화 실현
전용률 극대화로 수분양자 이익실현(1층 66.9%, 2층~4층 71.44%)
- 뛰어난 접근성** 혁신도시 핵심상권에 위치하여 고객출입객이 우수한 프리미엄 상가
5층에 스카이가든을 조성하여 운동, 휴식공간으로 활용

매주 투자설명회(수요일 13:00, 토요일 14:00, 분양사무실)

주식회사 오 늘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010-5587-3080

시행: 한빛기림(유) 책임시공사: 견해종합건설(주) 신탁사: 아시아신탁

한전 KDN

농수산물 유통공사

한전 KPS

빛가람동 주민센터

사업지 및 분양사무실

중앙호수공원

한빛타워 분양사무실

우정사업정보센터
국립전파 연구원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